

한울타리

보스톤한인교회 소식지

KCB Newsletter

Vol. 46 No. 2 2016.06.26

편집: 홍보 위원회

VOICES OF HARMONY CONCERT
MOZART, PIAZZOLLA, GERSHWIN, STRAUSS

VOICES OF
MOZART, PI

THE
JUNE
ISSUE

MAY 14, 2016
The Korean Church Boston (PCUSA)

자선음악회
당회소식
위원회소식
부서소식
쉐마의 밤
은사공동체
행사 및 광고
새교우 환영반

권두언

이영길 목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실 때 앞 못 보는 바디매오를 만납니다. 바디매오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바디매오가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랜 추운 겨울 동안 봄의 화사함을 기다리고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늦게나마 봄기운이 활짝 돌고 삼라만상이 자유를 노래하는듯 합니다. 이 놀라운 자연 세계를 바라보노라니 또 다른 보고 싶은 곳을 느끼게 됩니다.

‘이곳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천국은 어떨까?’

천국의 아름다움을 상상하며 자연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노래를 불러 봅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상 사는 동안부터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Editors:

김진홍

김한나

박신영

정은아

윤경문 목사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T: 617-739-2663

F: 617-739-1366

www.kcboston.org

담임목사: 이 영 길



어머니주일 찬양제

자선음악회

자선음악회 위원회 (위원장 김영범 장로)

2016년 5월 14일, 보스톤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Roxbury Presbyterian Church 를 돕기 위한 “Voices of Harmony Concert”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시리아 난민을 위한 음악회”, “탈북난민을 위한 음악회”등 이미 몇 차례의 자선음악회를 통해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우리교회는 이번 음악회 역시 도움이 필요한 Roxbury Presbyterian Church 에 작은 버팀목이라도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모든 교우들의 정성과 후원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Roxbury Presbyterian Church 는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 지역 사회를 위해 Social Impact Center 를 운영하며 Afro-Americans 을 위한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귀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웃교회에 우리교회는 이번 자선음악회에서 모금된 \$7,211 전액을 지난 5월 보스톤노회 미팅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자선음악회 위원회(위원장 김영범 장로)가 주관하였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전문 음악가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내외 콩쿨에서 최고의 수상경력을 가진 출연진들은 현재 여러 국제무대에서 연주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이번 음악회에서도 그들의 깊은 예술적 기량을 아낌없이 보여주었습니다.

KCB 앙상블을 지휘한 박진욱집사가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박기나, 고은애 교우(바이올린), 최혜민 교우(비올라), 문태국 교우(첼로), 안지혜 교우(피아노), 조유미 집사(소프라노), 장승호 교우(재즈 더블베이스)등이 화려한 연주무대를 수놓았습니다.

순서마다 뜨거운 감동을 선사했던 “Voices of Harmony Concert”는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었고 Mozart, Piazzolla, Gershwin, Strauss 등 클래식과 세미클래식을 오가는 연주들로 크로스오버의 진수를 느끼게 한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Roxbury Presbyterian Church 교우들의 힘찬 박수소리에 힘입어 재즈앙상블의 앙콜연주는 음악회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Intermission 에서는 이영길 담임목사의 음악회 취지의 말씀과 New England TV 앵커였던 Roxbury 교회의 Liz Walker 담임목사의 감사의 뜻을 전하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삼세대가 함께 배우는 보스톤한인교회의 이번 “Voices of Harmony Concert” 는 세대가 어우러져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음에 감사드리며 후원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름다운 Harmony 를 통해 이웃과 하나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회 소식

2016년 5월 당회는 영어예배사역 (EM)과 기타 여러가지 안건을 논의하고 각위원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어예배부 창립 준비위원장 김세철 장로는 Task force 의 그 동안의 활동과 경과, 현재의 상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당회원들이 함께 토의를 했습니다. KCBEM TASK FORCE 의 자세한 내용은 본지에 실린 소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보고요약

건물관리위원회에서는 친교실의 노후된 대형 창문 교체에 관한 보고를 했고, 교육 1부에서는 임박한 여름 성경학교 준비에 대해, 교육 2부는 청년부들의 야유회와 수련회, 그리고 청년들의 식사를 위해 각 부서와 교우들의 지속적인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교인위원회에서는 이번 여름에 있을 전교인 수양회에 대해, 국내선교위원회에서는 6월에 있을 브루클라인 지역의 저소득층 여성을 돕는 활동과 오아시스 카페에 대해 보고를 했습니다. 해외선교위원회에서는 현재 중남미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Zika virus 때문에 과테말라 단기선교파송을 취소하게된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홍보위원회는 우리 교우들이 참가했던 Brookline 타운 Open studio 라는 행사 (4월 30일)에 대해, 역사편찬위원회는 보스톤한인교회 60년 배포현황과 각 위원회와 부서의 활동내용을 역사자료를 Dropbox 구좌를 이용해서 수집하기위한 시스템에 대해 보고 했습니다.

위원회 소식

역사편찬위원회 소식 - 보스톤한인교회 60년사와 옛 교우의 만남

김정선 장로/ 위원장 박신영 장로

주님의 은혜와 온 교우들의 성원과 기도에 힘입어 보스톤한인교회 60년사가 출판되었습니다. 60년사에는 희년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한반도의 배달 민족으로 미국 땅 보스톤에 옮겨 심어진 그리스도를 믿는 순례자들의 교회’ 이야기가 담겨있고, 이 이야기 속에 지난 60여년간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은총, 주의 섬세한 사랑의 손길, 주께 영광 돌리는 순례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엮여져 있습니다. 5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이야기는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한국 이민자들이 같이 걸어온 이야기이기도 주위 분들과 미국사회에 알리고 나눠야 하는 귀한 역사입니다. 감사하게도 한국에 계신 옛 교우님들 (김장환/이양자 교수부부, 이일영/강경희 장로부부, 조성일/김옥주 교수부부, 최정열 (고산) 교우, 이해영 교우)께서 자비를 들여 한국도서관, 신학대학, 역사박물관, 한인교회, 기독교기관, 언론사 등 100여군데에 우송을 마쳤고, 계속해서 옛 교우들과 관심있는 개인들에게도 우송/배달을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신 옛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 보스톤에서도 보스톤 지역사회, 한인사회, media, University, Library, Research 기관, 미국교회, PCUSA Presbytery, Brookline town, 주소가 확인 된 타주에 계신

옛 교우님들께 우송했습니다. 또한 미국내 한인교회는 우리 교회가 소속한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NCKPC) 의 6 월말 Conference 에서 참가자들에게 120 부의 책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 역사책의 출간은 많은 새로운 만남과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국과 각처에 계신 많은 옛 교우님들이 과거 유학시절 다녔던 보스톤한인교회의 모습을 만났고, 또한 60주년 교회사 배포를 하면서 한국에 계신 보스톤한인교회의 옛 교우들이 같이 만나 친교를 나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옛 교우님들이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편지를 보내왔고, 몇몇 옛 교우님들 (최근 방문하신 김달중 교수, 김장환 교수 등)은 직접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또한 옛 교우들이 모여 교회를 위한 기금 3 천불 모금해서 본 교회에 보내왔습니다. 옛 교우님들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스톤한인교회 60 년사는 우리 교우들에게 교회 역사와의 만남 뿐 아니라, 세월을 가로질러 옛 교우님들과의 종적인 만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반가운 얼굴들과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은 사진들을 보면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안에서 하나임을 다시금 확인해 봅니다.



한국에서 열린 옛 교우 모임



김달중 교수 방문



김장환 교수 방문



김장환 교수 방문 환영 오찬

국내선교위원회 소식

위원장 이선영 장로

Thriving Women & Girls in Brookline: 우리 교회가 위치한 Brookline 에서 low- income 여성들을 돕기 위해 형성된 Women and Girls Thriving in Brookline 이란 기관에서 이들을 위한 dinner 를 열고, Healthy living style 을 소개하며 돕는 행사를 지난 6 월 2 일 친교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dinner 행사에서는 First Presbyterian Church 와 함께 우리교회 국내선교위원들을 중심으로(김동숙, 이해원, 이경자, 전아사, 이선영, 윤경문- 존칭 생략) 한국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였습니다. 많은 Brookline 여성들이 참여하여 교제와 음식을 나누며, Free 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행사들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은 한국 음식을 좋아했으며, 음식을 준비해준 우리 교회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Thank you for facilitating this wonderful evening.
Please thank the goods for me as well. I'd love a
cooking lesson from the Korean church. I hope to see
you all again soon.”



Oasis Café Music Night “Marimba Summer 2016”: 국내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음악을 통해 이웃과 하나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Oasis Café music night 에서 6/18(토요일) 오후 7 시에 우리교회 청년 1 부 소속인 천 크리스티나 교우가 음악인 친구들과 함께 마림바를 연주했습니다. 크리스티나 교우는 Boston Conservatory 석사 과정을 졸업 후 곧 캘리포니아로 이주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선율의 다양한 마림바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EM Ministry 소식 - KCBEM TASK FORCE

영어예배부 창립 준비위원장 김세철 장로

영어예배부 신설 추진작업이 활발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5월 쉼마의 밤에 참석한 교인들에게 알려 드린대로 지난해 2월 당회에서 제안, 그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수차례에 걸쳐 모여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스톤한인교회는 물론, 이 지역 사회활동 및 정치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 한인계 소수민족의 목소리와 지도자들이 되고, 또 새시대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 맡아 나아갈 주역들이며 제 2의 희년 잔치를 치를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이나 것입니다. 비록 언어구사는 우리와 다르지만, 이들의 신앙은 뜨겁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들이 중고등부(영어권)를 마치고 대학생들이 되어 우리교회에 다시 돌아오면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데가 없어서 영어예배부가 있는 타 교회로 가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는 이들이 신앙의 본향인 KCB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이들의 영적 성장을 계속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영어예배와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아울러 타 주에서 보스톤 지역으로 대학진학이나 직장으로 인해 이주한 영어권 세대 한인 2세대들의 영적인 쉼터 역할도 해내야 할 것입니다.

KCB-EM(English Ministry) 라는 새이름으로 이제 곧 모든 것이 주님의 뜻으로 믿고 우리 준비위원회는 최선의 노력으로 분주히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몇몇 사람들의 힘만 가지고는 절대 이루어 질수가없음을 여러분들께 알리고 싶습니다. KCBEM 이 탄생하려면 전교인들이 합심하여 이를 위한 기도와 지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수년전에 이룩한 ECC 건축운동과 같은 열정으로 말입니다.

얼마전 노회(PCUSA)에서도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의미로 지원금 \$7500 을 전달받았습니다.

앞으로도 KCBEM 이 창립되려면 갈 길이 쉽고 고르지 않은 것이며 이 새로운 예배의 공동체가 되고 일어설 머릿돌이 들어갈 기반을 잘 닦아 놓아야 할 것입니다.

교인들 모두가 한 뜻으로 원하는 KCBEM 이 되어 가까운 시일에 탄생될 수 있게 이 글을 읽는 교인 여러분들 에게 기도와 후원을 부탁 드립니다.

홍보위원회 소식

위원장 박신영 장로

Brookline 타운에서 매년 주최하는 Open studio 라는 행사가 4월 30일 오전 11 시에서 오후 5 시까지 ECC Community Hall 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우님들도 참여했는데, 송재옥 교우님의 조각작품, 김현지 권사님의 서예와 크로마를 이용한 작품, 전아사 교우님의 퀼트작품, 김희정 집사님의 회화 작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좋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부서소식

해바라기 주일학교

유년주일학교 교사 Caroline Kim 교우

On June 5th I will be shaving off all my hair as part of the One Mission BuzzOff, a fundraising event to support pediatric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This organization aims to relieve the kids and families from some of the financial and emotional stress that cancer takes on them.

I teach the fourth grade class in our Sunflower Sunday school, and before showing up to church bald I wanted to explain to both students and teachers what I would be doing and why. After speaking about it with the children's pastor, SuYoung Kim, we both took some time during the two children's worship services and talked about it. The sermon for that day was about how Jesus wept with those who were sad, and how he feels for those who suffer. I spoke about how I would be shaving my head in solidarity with the kids who don't get to choose to lose their hair, as a way to comfort and support them. The following Sunday, after our regular offering time, we passed around a separate offering box to collect donations for the One Mission BuzzOff. I'm humbled by all the donations I received, but I could say that I'm most humbled by the three coins I found in that offering box. Some were prepared to give a separate offering, and some weren't. One or two students forgot, but still wanted to give something, and so at the bottom of the box I ended up with a dollar coin, a quarter, and a nickel. I will be giving up my hair, but they gave all the money they had. I am incredibly blessed to know and receive support from the Sunday school children and staff, and pray that what we have to offer will be put to good use.

중고등부 졸업 파티

중고등부 졸업 파티 (aka Love Feast)는 5월 22일에 성공적으로 치뤄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의 섬김으로 졸업생들을 축하했습니다. 이영길 목사님의 설교는 졸업생들에게 앞으로 대학생 및 어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큰 힘이 되는 설교였습니다. 졸업생들은 보스톤한인교회 중고등부가 각자의 신앙생활 및 삶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일부분이었던지를 나누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격려와 축복이 넘치는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이번 졸업 파티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교육 2 부 야유회 소식

청년 1 부, 2 부, 부부청년부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 2 부에서는 5 월 22 일 Larz Anderson Park 에서 야유회를 가졌습니다. 교육 2 부 위원들(김영범장로, 한문수/구용한/최학수 집사들)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해 주신 바베큐 파티로 청년들과 부청이 하나되는 즐거운 야유회를 가졌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 1 부 소식

회장 김효인 교우

사순절이 시작된 몇 주전, 2 월 11 일 목요일 새벽부터 하나님께서는 청년 1 부에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순절 새벽기도에 처음 가게 된 저는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예배당에 도착했습니다. 예배당에 도착하니 벌써 찬양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처럼 앞 스크린에 찬양 가사가 뜨지 않으니 오랫동안 찬송가를 열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눈처럼 사르르 녹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유없이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날 꼭~ 껴안은 것 같이 어찌 그리 내 마음이 따뜻해 지는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배 후 기도 중 청년 1 부를 위해 간절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 1 부와 함께 해 주시고, 이 공동체 잊지 말아주세요. 청년 1 부 사랑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꼭! 사랑으로 함께해주세요”. 부족하지만 회장으로써 청년 1 부를 섬기는 동안 정말 부흥의 불꽃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소원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마음이 깨어서 기쁨과 감사를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청년 1 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더 뜨거웠으면…… 조금 더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다면……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부엌의 맛있는 냄새를 따라 베이글과 커피를 먹으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듯, 테이블에는 청년 1 부 친구들이 가득 앉아있었습니다. 예상치도 않게 많은 친구들이 함께 나와서 놀라운 기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청년 1 부에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고 3 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청년 1 부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게는 17 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저희를 예배당으로 이끄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새벽기도 후에 교회 어르신들과 또 청년 1,2 부 식구들과 함께 먹는 베이글과 커피는 너무도 달고 맛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에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달콤합니다.

고난의 사순절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을 허락해주신 하나님, 청년 1 부를 기억해 주시고 부흥의 씨앗을 심고 뿌려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청년 2부 소식

5월 1일- 2016-2017년을 섬겨줄 새 회장단을 선출되었습니다. 회장: 박명우, 부회장: 조영지, 총무: 김지영. 7월부터 새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울러 봄학기 동안 리더로 열심히 섬겨준 배유미, 반아영, 박초롱 교우가 방학기간 한국에 가는 이유로 여름 성경공부 인도를 위하여 이지니, 김하얀, 이정환 교우가 리더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부부청년부 소식

정은아 집사 이제 모든 학교가 일제히 길고 긴 여름방학에 들어갔습니다. 부부청년부의 사역을 학교 커리큘럼을 기준으로 보면 반 학기를 마친 셈인데, 반 학기의 기준은 부부청년부 수련회입니다. 부부청년부 소속 어린이들은 새해 달력을 받자마자 부부청년부 수련회 날짜를 체크합니다. 그 다음이 여름 성경학교이니까, 부부청년부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대번에 아실 수 있겠지요~^^.

이번 수련회는 6월 10~12일, 뉴햄프셔에 위치한 수양원 (전교인 수련회 장소와 동일)에서 “성장”이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날 저녁부터 맛있는 식사와 뜨거운 찬양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진정한 성장을 경험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을 성경적 관점으로 풀어나가신 문영범 강사 목사님의 설교로 알차고 유익한 수련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도 잘 준비된 프로그램에 맞춰 육과 영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 진행된 강의, 조모임, 가족만의 자유로운 시간들로 부부청년부 식구들은 몸과 마음이 풍성해졌고 셋째 날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나누며 이제 다시 돌아갈 세상을 부.청 식구들은 모두 기대하였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스톤한인교회 제직 수련회 말씀 (4/16-4/17/2016)

편집자 주: 이번 제직 수련회에는 예전에 우리교회에서 부부청년부 사역을 하였던 소기범 목사님 (현재 뉴저지 은혜와 사랑의 교회 시무)께서 강사로 오셔서 ‘십자가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소기범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 그 내용을 요약하여 본지에 실었습니다.

십자가의 영성: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4가지의 관계가 골고루 발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성은 균형잡힌 건강한 영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가지의 관계가 모두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에는 십자가의 영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영성이 소개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일곱 말씀 가운데 시간 관계상 2가지의 말씀만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1. 첫 번째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 십자가의 영성은 용서의 영성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육신만이 아니라 마음 또한 배신과 상처로 갈기갈기 찢긴 상태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배신하고 상처준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저주를 퍼부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입을 연 첫 번째 말씀은 용서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죄의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기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가 임하는 사건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처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삽니다.

김영봉 목사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는 책에서 아픔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 부부가 한국에서 아들을 낳은지 얼마 안 되어서 이민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민생활을 빨리 적응하려고 태어난지 얼마 안 된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미국으로 옵니다. 부부는 미국에 와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려올만큼 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 아들은 이미 열 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늦게야 부모의 품에 돌아온 그 아들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방황을 시작했고, 자주 부모의 속을 썩였습니다. 그때마다 이 부부는 아들을 혼내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부가 하나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아들이 부모와 떨어진 10년 동안 얼마나 상처가 많이 생겼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안고 미국에 와서 적응하느라 또 얼마나 상처가 생겼는지 이것이 보이

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들의 행동이 밋기만 했는데, 그의 상처가 보이니까 오히려 부모가 죄스럽고 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아들에게 준 상처가 다 치료될 때까지 우리 부부가 그 쓴물을 모두 마셔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이후로 아들이 속을 썩여도 화를 내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아들이 속을 썩이는 것을 아들의 가슴에 있는 쓴물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아픔을 당하는 만큼 아들이 치유된다고 믿고, 아이가 쏟아내는 쓴물을 모두 받아냅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쓴물을 빨아들이면, 그 사람의 아픔이 치유가 됩니다. 켈커타의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의 역설을 발견하였습니다. 아픔을 느끼기까지 누군가를 사랑하면, 결국 아픔은 사라지고 사랑만 남는다는 진실 말입니다.” 이것이 참 귀한 말이지요. 아픔을 느끼기까지 누군가를 사랑하면, 아픔은 사라지고 사랑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희생을 미화하거나, 누군가의 희생을 정당화하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테레사 수녀는 그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에서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쓴물을 모두 받아내기까지 사랑하면, 결국 아픔은 사라지고 사랑만 남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쓴물을 모두 받아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상처의 쓴물을 모두 받아내고, 이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는 죄용서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진 관계는 십자가를 통해 치유가 되고,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나타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또한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용서의 영성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를 실천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저의 교회에서 용서의 영성을 배워가면서 저는 용서의 영성에 담긴 세 가지의 원리를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십자가로 용서받은 자라는 감격 속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십자가를 놓고 볼 때입니다.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바라본다는 것은 나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십자가가 나의 쓴물을 모두 빨아들였다는 감격과 감사 속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용서의 영성의 두 번째 원리는 용서를 영적인 일로 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용서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간관계의 영역으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부흥집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모였지만, 집회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던 길선주 장로입니다. 장대현교회의 수석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는 자신의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거금의 유산 이 백원을 맡깁니다. 그 친구의 아이들이 어려서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면 전해달라고 돈을 맡겼는데, 길선주 장로는 그 돈에서 백 원을 급한 일에 써버리고, 그 친구의 자손들에게는 남은 돈 백 원만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장로가 무슨 저래.' 하면서 욕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백을 듣고 저마다 자신이 숨겨 놓은 죄를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일어나며, "나도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집회의 마지막 순간에 회중들이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용서의 영성이 가르쳐주는 원리는 용서는 결국 자신이 회복할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 누군가의 죄로 인해 고통을 받은 사람이 그 아픔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용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사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해결해야 하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이런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까지 해야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에 우리는 엄청난 분노를 느낍니다. 이런 일들을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자신에게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깊은 자존감의 상처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깊은 상처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이러한 상처들을 마음으로부터 내보내는 과정입니다. 용서는 나의 분노를 내보내는 과정입니다. 용서는 자기가 경험했던 무기력함을 내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영성은 결국은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가해자에게는 죄와 죄책감으로 해방시키고, 피해자는 분노와 상처를 가슴에서 내보내며 살리는 것입니다.

2. 두 번째 묵상할 십자가 위의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 27:46) 라는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십자가의 영성은 하나님의 은폐입니다. 곧 숨어계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영성에서는 이 주제가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며 외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졌던 십자가에는 사실 하나님의 침묵만이 있습니다. 이 무서운 침묵, 하나님의 숨어버림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합니다. 나의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숨어버린 하나님의 모습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는 나의 고난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하나님의 차가운 침묵의 순간입니다. (중략)

결국 숨어계신 하나님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폐는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날 때 경험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세속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는 십자가의 낯선 방법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숨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폐는 나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계획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나의 눈이 영광의 신학만을 쫓아가고 있을 때, 우리 보다 높고 높으신 십자가의 낯선 방법은 우리에게 하나님 숨어버림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니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고 생각할 때에 나의 방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영광과 승리에만 관심하고 있는 내가 십자가의 길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중략)

숨어계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묵상할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외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절규에 왜 하나님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일관하셨는가?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 어디에 계시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의 이 힘겨운 싸움이 계속 되어야 합니까?’ 외치는 소리에 왜 하나님은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입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예수님과 함께 아파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도 함께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십니다. (중략)

하나님의 침묵은 부활을 준비하는 침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바로 이 부활의 승리를 준비하는 침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 묵묵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인 것 같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부활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저는 최근에 김현봉 목사님이라는 분의 글을 읽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초기 목사님들 가운데 1884년생이신 김현봉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장로교 목사로 서대문의 빈민촌에서 아현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을 붙잡은 분입니다. 이분이 받은 사명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현교회는 간판도 없고, 의자도 없고, 성가대나 악기도 없고, 교회 제직도 장로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1,2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김현봉 목사는 새벽 2시면 산으로 기도하러 갔지만,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따로 모이지 않고 교인들에게 각자 집이나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

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빈민촌의 사람들이 하루 12시간, 14시간씩 일하는데, 새벽기도나 수요예배까지 강요하면 피곤해서 낮에 일하다가 공장에서 손가락이나 손목이 잘리는 사고를 종종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웃 사랑을 교회의 사명으로 받았던 김현봉 목사님은 매일 60-70 집의 교인들의 심방을 다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교인의 집에 가서 생활을 살피주는 것이었습니다. 무연탄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지, 병이 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면서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었습니다. 사업이 실패한 사람에게는 사업자금을 무상으로 주고, 이 사람이 돈을 갚는 방법은 나중에 현금함에 그저 넣는 것이었습니다. 60년대 배고픈 시절에 쌀밥과 고깃국을 거지들에게 대접하여서 주일예배 때에 시내의 거지들이 모여들었고, 예배 후에 줄을 세워 100원씩 주어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교회의 현금은 전액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고, 현금궤의 열쇠를 목사님이 갖고서 장부도 없고 관리하는 제직도 없이 목사님이 현금을 구제를 위해 마음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교인들 중에 어떤 의심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분에 대한 글을 읽는데, 이것이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싶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가능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김현봉 목사님은 교회는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십자가의 영성을 추구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순종과 비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처럼, 교회는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은 교회를 세상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십자가에 나타난 용서의 영성, 하나님의 숨어계심에 나타난 십자가의 영성으로 모든 제직들이 세워지고, 보스톤한인교회가 십자가의 영성을 드러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쉐마의 밤 (5/28)



3 세대가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주안의 한 가족됨을 누리는 쉐마의 밤이 5월 28일 열렸습니다. 이번 5월 쉐마의 밤에서는 특별히 앞으로 세워질 English Ministry 사역을 위하여 EM Task Force 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M Task Force 로 수고하시는 김세철 장로, 강원택 전도사, 황동준 집사, 이혜승 집사, 이준석 교우의 “3 세대가 함께 할 EM 을 위하여”란 제목의 Skit 이 있었고, EM 사역을 응원하기 위하여 하늘소리의 사물놀이 연주와 더불어 당회원들과 청년 1 부가 함께 특순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EM Launching 을 위해 노회의 Rev. Cindy Kohlmann 도 참석하셔서, PCUSA 에서 Grant 로 받은 \$7,500 을 전달해 주셨고, 권면의 말씀과 아울러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영길 담임목사님은 ‘작은 것이로되...’란 제목의 말씀을 주셨으며, 다함께 가족과 이웃, 이웃 교회인 Roxbury Presbyterian Church 의 social impact center 를 위하여, 그리고 EM 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탄생될 EM 을 위한 온 교우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탁구 동호회 소식

탁구동우회장 권복태 장로

탁구동우회에서는 지난 5월 12일(목) 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친교실에서 연습 모임을 가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간편한 운동복/운동화를 착용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연령이나 기술에 제한은 없고 회비도 없습니다. 초보자에게는 Lesson 도 제공되며, 우리 교회 교인 뿐 아니라 타교회 혹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문의가 있으시면 권복태 장로 (781)408-9430 으로 연락 바랍니다.

교회행사 및 광고

담임목사 동정

이영길 담임목사님께서 6/17-25 일 오레곤주 포틀랜드시에서 열리는 미장로교 총회 (PCUSA General Assembly) 에 총대 (총회대표)로 참석하십니다.

이번 총회에서 이목사님께서는 Ecumenical and Interfaith Relations Committee 의 Moderator 를 맡으십니다. 모든 일정들을 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NCKPC 모임: 6/27-7/1

PCSUA 의 한국교회 협의회인 National Counsel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 (NCKPC) 의 총회가 6/27-7/1 일 오클라호마주 Norman 에서 열립니다. 이영길 담임목사님께서는 실행위원 (직전 총회장)으로, 김한나 권사님은 임원 (평신도 부총회장)으로 참석하십니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 교회 국내선교 위원회의 문화 사역(Oasis café music night, 등)에 대한 소개 요청이 있어서 윤경문 목사님께서 사역소개 Workshop 을 인도하실 예정이고, 아울러 김정선 장로님께서 보스톤한인교회 60 년사 역사책을 소개하고, 역사책 편찬 과정과 이민교회의 의미있는 역사를 sharing 하는 시간을 맡으십니다. 총회 참가자들에게 보스톤한인교회 60 년사 역사책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교육 3 부 신앙강좌

교육 3 부 위원장 권복태 장로

교육 3 부 신앙강좌가 6 월 26 일 주일에 있습니다. 이 일로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 12 월 13 일에는 김건철 목사님께서 "교회와 역동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셔서 많은 성도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요한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삶, 복음서는 진리인가, 오류인가?"라는 제목으로 한 분 예수님과 공생애를 다양한 복음서 기자의 눈으로 기록해 놓은 복음서의 기록을 따라가 보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과 지성과 과학의 시대에 성경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중심에 대해 확실한 길잡이를 말씀해 주실 것 입니다.

강좌는 아래층 Community Hall 에서 주일 오전 10:20 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그 전에 다과가 제공됩니다.

1 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 바로 내려 가셔서 답소하시며 교제를 나누시고, 어린이를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10 시부터 Babysitting 을 해 드립니다.

소그룹 성경공부에 속해있는 모든 분들 뿐 아니라 주위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도 많이 참여토록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 월 26 일에는 별도로 성경공부 모임이 없고 본 강좌로 대체합니다. 감사합니다!!

BNI (Boston Nehemiah Institute) 강좌 안내

BNI 이사 권복태 장로

보스턴 지역의 모든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연합하여, 신학훈련을 통한 건강한 평신도 지도자의 육성과, 해외 선교지의 신학 교육 지원 등의 사명을 목적으로 설립된 BNI가 금년으로 셋째 해를 맞았습니다.

지난 4월 4일 부터 가졌던 봄학기는, Central Class (보스톤한인교회)에서 김영호 목사님이 “호세아와 아모스가 말하는 신앙생활”, 장성철 목사님이 “과학과 신앙”을, 그리고 North Class (나사렛사람의 교회)에서 이영길/유경렬 목사님 두 분이 “이민신학 알아가기”, 김이근 목사님이 “한눈에 보는 마태복음”이라는 제목으로 6월 14일 10주에 걸친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매 강의마다 다양한 강사진으로부터 다양한 관점의 성경 해석으로 폭 넓은 사고의 영역을 제공 받음으로 수강생 모두가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뿐 아니라, 각자의 신앙의 깊이를 넓히며 삶과 신앙을 재조명하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BNI에서는 금년 초, 소말리아의 Indrias Belete 선교사를 한국의 ACTS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에 장학생으로 초청, 유학시켜 신학공부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말리아에 복음을 전파하는 작은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BNI의 신학원을 통한 평신도 지도자 양성과 선교원을 통한 해외선교지 신학교육지원은 BNI의 양대 축이며, 이 모든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수강생들과 후원자들로 인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지난 3월 12일 이성운 교수의 특강 (북한의 대외 전략과 한미 대응 방향)에 참여하신 모든 후원자 여러분들과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봄학기가 끝나면 BNI는 9월 12일 (월) 부터 가을학기를 시작하게 되고 바로 앞 토요일 (9월 10일)에 공개강좌가 실시됩니다.

계속하여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보스톤한인교회 전교인 여름 수양회

전교인이 함께 대자연에서 휴식과 교제, 말씀과 찬양을 통한 신앙성장을 할 수 있는 여름 수양회가 개최됩니다. 7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조기 등록은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많은 참가를 당부합니다.

일시: 2016년 8월 19일 (금) 오후 5시 - 21일 (주일) 오후 3시

장사: 이건호 목사 (그린빌 한인장로교회 시무)

“행복한 동행”

2016년 KCB 여름 수양회



일시: 2016년 8월9일(금) 오후 5시 - 21일(주일) 오후 3시
 강사: 이진호 목사님 (그린빌 한인장교회)
 장소: Pilgrim Pines conference center, New Hampshire

장소: Pilgrim Pines Conference Center, NH

프로그램: 유년초등주일학교, 중고등부, 일반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마련

조기등록: 7/10/16 ~ 8/7/16 까지; 등록비 - 일반 (\$110), 대학생/ Senior (\$60), 어린이 (\$50)

주제: 행복한 동행

1. 동행: 창 5:21-24
부제: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서 (눅 2:41-52)
2. 동거: 요 15:1-27
부제: 주무시는 예수를 깨워서 (마 8:23-27)
3. 동심: 행 2:1-47
부제: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빌 2:5-11)
4. 동향: 빌 3:12-21
부제: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예수를 따라서 (히 13:1-13)
5. 동역: 고전 3:1-4:5
부제: 나보다 먼저 가 계신 예수를 기대하며 (요 1:43-51)



Pilgrim Pines Conference Center

새교우 환영반 소식



교인 위원회에서는 보스톤한인교회에 새로 오신 교우 여러분들께 우리 교회와 교단을 소개하는 새교우 환영반 교육을 2016년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3주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새교우 환영반에는 이재영/김신희, 신호식/김정현, 신준섭/박예리, 최정숙, 김순금, 김세환, 이숙진 교우님 가정이 함께 하셨습니다. 첫주에는 자기소개 및 짧은 신앙 간증의 시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둘째 주에는 '말씀과 함께' 성경공부 교재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셋째 주에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PCUSA)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셋째 주 교육이 마친 후, 새교우 환영 만찬이 김진홍/ 김경태 집사님 댁에서 있었습니다. 풍성한 음식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새교우 환영 만찬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음식을 제공해 주신 김진홍/김경태 집사님 가정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영/김신희 교우님가정은 남동구역 소속으로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며 자녀로는 9학년인 선우와 1학년인 병우를 슬하에 두고 계십니다.

신호식/김정현 가정은 중서 2 구역 소속으로 이번에 교환교수로 보스턴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슬하에 성진이와 민찬이를 자녀로 두고 계십니다. 2부 성가대에서 봉사하십니다.

신준섭/박예리 가정은 부부 청년부 소속으로 신준섭 교우의 오랜 유학생생활 후 결혼과 함께 보스턴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교인 1 부위원회에서 봉사하십니다.

최정숙 집사님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 하시다가 은퇴 후, 직장생활을 하는 아들이 보스턴에 있어 오시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중앙 2 구역 소속이십니다.

김순금 권사님은 미국에서 오랜 이민생활을 하였고 직장때문에 보스턴으로 이주한 막내아들과 함께 계시고자 보스턴으로 오셨습니다. 중앙 2 구역 소속이십니다.

김세환, 이숙진교우님은 전부터 교회에 다니시고 계시지만 새교우 환영반 과정을 거치시지 않아 이번에 조인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숙진 교우님은 김세환 교우의 형수님이시고, 썸머빌에서 북경반점 1 을 운영하고 계시니다.

보스톤한인교회에 새로 오신 교우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교우 환영반을 통해 보스톤한인교회에서 신앙 생활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VOICES OF HARMONY CONCERT
MOZART, PIAZZOLLA, GERSHWIN, STRAUSS



Saturday, May 14, 2016. 7:30 pm.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for more info - www.kcboston.org - 617 739 2663 - kcbweb@hotmail.com

자선음악회

“Voices of Harmony Concert”
Saturday, May 14, 2016. 7:30 pm



성금요일 예배



집사회 어머니주일 오찬 준비



VBS



어머니주일 찬양제



VBS



보스톤 한인교회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For more info · www.kcboston.org

READ ONLINE



<https://goo.gl/cRE7tE>